

How can there be mercy in a war zone?

어떻게 전쟁지역에 자비가 있을수 있습니까?

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이 이야기는 병원근무 군목사에게서 들었으며 그는 몇년전 미군으로 베이루트에 주둔했었다고 했습니다. (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)

우리의 이야기 시작은 그 당시 미군과 지역주민과의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때였으며 더구나 일련의 폭탄공격을 한후라 긴장은 말할수없이 높았다고 했습니다.

어느날 오후, 몇명의 군인이 보초를 서고있을때 한 나이많은 여인이 이상한 장치가 담긴 카트(cart) 를 끌면서 킁킁대며 천천히 그들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. 그날은 먼지가 많은 아주 더운 날씨였고 그 나이많은 늙은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끌었지만 늙은이가 끌기에는 그 카트는 확실히 무거웠습니다.

그녀가 마침내 보초병들에게 도착하자, 그녀는 잠깐 정지한후 그 카트에서 주전자를 꺼내어 자신이 차를 조용히 마셨습니다. 그녀는 카트에서 컵을 몇개 찾아서 그 보초병들에게 차를 권했지요. 그들중 두명이, 나의 군목을 포함해서 다른 보초가 그녀의 초대에 응해서 차를 마셨답니다.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먼지가 나는 길을 되돌아갔습니다.

다음날 그녀는 차 주전자를 가지고 또 왔고 이번에는 여러명의 보초들이 기꺼이 그녀의 차를 마셨습니다. 다음날도 많은 보초병들이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여러명의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

이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. 하루하루 그 나이많은 늙은이는 차를 만들어 왔고 보초병들은 그녀와 차를 마셨습니다. 그녀의 친구들은 음식을 가져오기시작했고 - 약간의 중동 빵이나 특별한 음식 - 을 보초병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.

시간이 지나면서, 한 보초병이 그녀가 어디사는지 알기위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- 그녀는 폭격으로 지붕이 날라가서 지붕이없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 군인들은 그녀의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...그녀는 지붕이 있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매일 매일 그 보초병들과 차를 나누었습니다.

전쟁으로 파괴된 베이루트와 먼지가 뒤덮인 그 거리에서 무슨일이 일어났었습니까?
자비가 있었습니다. 자비를 받았습니다. 자비.